△학생 문예운동 점검과 역할 규명을 위한 시리즈 (4)

장르문예운동론

장르문예활동론을 제기하며

일상적 창작체계·대중문예교사 발굴이 과제
문예창작, 삶 속에서 생활감정 형상화해야

Ⅰ. 각 장르의 원칙

각 장르활동을 올바로 하기 위한 4가지의 원칙이 각 장르운동을 올바로 풀어나가기 위해 중심적으로 문예일꾼의 고민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첫째로 청년학생문예일꾼은 어느 자리에 서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청년학생문예일꾼은 청년학생의 생활과 삶과 투쟁의 한 자리에 있어야 함을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다.

청년학생문예일꾼은 학우들의 구체적 생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미묘하고 섬세한 생활감정을 움켜쥐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형성화에 실패하게 된다.

바로 깊이 있는 생활을 총화하고 변혁의 한 길로 나가는 과정으로 생활과 삶, 투쟁 속에서 문예일꾼의 몫을 창작해낸다면 그 창작물은 청년학생 모두에게 가슴 뭉클하게 전달될 것이다.

둘째로 자주적 대중문예 교사관을 올바로 틀어쥐는 것이다. 자주적 대중문예교사란 무엇인가?

이 문예교사는 단위 문화패 성원들의 생활과 삶, 투쟁을 면밀히 지도해 주며 이것을 창작과정을 통해 문예일꾼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사안을 예술적 형상화로 선전선동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라야 한다. 단위 성원의 생활과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해내며 창작으로 조직할 때만이 생활 속에 힘있게 결합시키는 문예창작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로 단위패 체계와 그 운용을 일상적 창작체계로 전화할 것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단위패를 창작체계로 전환하면서 단위회원들의 생활과 삶, 투쟁을 창작으로 총화하면서 단위성원들의 자주성을 고양시켜내고 사람을 묶어세우는 일상적 창작체계는 핵심적으로 고민되어야한다.

네째로 사람을 남겨야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간 우리 문예패에서의 창작의 과정은 선배들의 정치적 사안을 제기받아 정치적 구호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해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작품에는 대중의 생활과 삶이 깊이 녹아있지 못하고 정치적 구호만 남발되어 대중들을 감성적으로 교양하고 감동을 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해결은 '조직창작'에서 해결되고 있다. 조직창작은 창작성원의 개인적 열정과 지혜를 조직화하여 집단의 힘으로 창작물의 예술성과 정치성을 높여내는 것이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취재를 거쳐 그사건에 관계된 구체적인 사람의 형상과 생활감정, 성격들을 발굴하고 이 재료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원은 자신의 창작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이러한 열정에는 그 사람들의 지나온 생활과 정서, 방황과 고민이 창작 속에 온전히 녹아들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새롭게 태어나게한다. 이렇게 창작의 과정을 거치면 창작성원의 문예에 대한 지향은 더욱 상승하고 성원들은 생활과 삶, 투쟁 속에서 더욱더 주인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Ⅱ. 장르별 문예운동의 문제

장르별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각 장르활동을 올바로 풀기 위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데 중심을 두고자 한다.

1. 문학

인간의 언어에 기반해서 예술적 형상화를 이뤄내는 문학은 모든 장르의 한 가운데에서 타 장르에 긴밀히 결합·지원해주고 있는 장르이다. 또한 다른 장르문예일꾼도 문학적 형상화를 빼고는 자기 장르를 올바로 세울 수는없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은 많은 모범을 구현하고 있으며 창작의 성과와 경험이 가장 많고 대중화되어있어 다른 문예일꾼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 스스로가 문학을 통해 자기의 삶을 총화하고 새 길로 나가게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과제이며, 보통 문학회에서는 일주일마다 자기 창작물을 내보이며 서로 평가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창작의 성과를 대중에게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의 성과물을 어떻게하면 더욱더 대중에게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보급하는 방식이 활자매체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고 집단적 보급이 미약하다.

다른 장르같은 경우 기동성과 집단적 공유가 매우 높지만 부분적으로 시낭송회나 시극 같은 경우 좀더 공연방식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내고 기동성을 높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극전통에 세계의 극전통을 결합하면 기계적 혁신을 낳을 소지가 있다

2. 풍물굿

풍물굿은 조상들의 훌륭한 창작성과에 기반하여 풍부하면서도 완벽한 구조를 갖고 수많은 민중을 울렸다.

이러한 창작전통을 올바로 살리는것이 이 시대 풍물일꾼의 고민으로 자리잡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전통을 올바로 계승하면서 풍물굿의 창작원리를 밝혀내는 것 바로 풍물운동의 과제라 생각된다.

풍물일꾼은 연구사업에 좀더 고민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풍물굿의 창작원리와 창작전통-풍물패의 일상적 창작체계로의 전환을 이뤄내며 풍물패를 자주적 대중문예조직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풍물패의 일상사업으로는 합굿연습이나 단위패 학습과 매주 기량연습이 있다. 이것이 창작원리의 해명과 결합될때 풍물패는 일상사업-창작사업의 힘있는 문예패로 발돋움 할 것이다.

3. 미술

사실주의 창작방법만은 미술의 내용을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사실주의는 창작방법으로는 구체적 생활묘사와 형상화에서 힘있게 미술을 추도해주고 있다. 미술일꾼은 개인창작을 자기의 기본으로 세워야 한다. 집단적으로만 창작하고 각개 개인의 창작물이 없을 경우 그 그림은 주로 정치적 내용 중심의 도식적인 창작물로 전락하기 쉽다.

단위패의 일상적 창작체계의 보장과 개인의 창작물을 서로 평가해주는 합평회가 미술패에게 일상사업의 중심적 내용이라 생각된다.

4. 연극(민속극)

아직까지 '민족극'이라하면 내용적으로는 서있지만 형상화 방식에서는 많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극전통을 올바로 세우는것이 고민의 발돋움이 아닐까한다. 여기에 서양의 조명-분장-연출기법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민족극의 형식으로 자리잡아나갈 것이다.

우리 조선민족의 극형상화 전통을 중심에 세우고 세계의 극전통을 결합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기계적 형식을 낳을 소지가 있다. 우리의 정서와 미감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기초에 서지 못하면 그런면에서 탈춤의 창작전통과 연희전통을 올바로 학습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과제라 볼 수 있다.

5. 노래

노래는 누구나 다 부르고, 한명도 여러 명도 같이 부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음악적 형상을 통해 대중의 감성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다른 장르보다 더욱 힘이 있다. 악곡과 선율에는 인간이 몇백만년 살아온 음악적 형상이 있고 인간의 기쁨, 슬픔, 분노가 세심하게 담겨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래는 예전의 노래만 부르는 '노래패'에서 이제 창작으로의 전환, 노래만 부르는 것에서 폭 넓고 다양한 악기 사용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재창조, 연기 등을 통한 가극적 완성도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노래패는 창작주체를 올바로 조직화하고 세워내면서 일상적 창작체계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주체라고 하면 협소하게 '음악반주자'나 '노래창작, 편곡자'만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노래를 불러내는 과정에서도 개개인의 창작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래패에서의 창작주체는 기본적으로 음악적 예술성에 기초한 '창작가'이어야 한다. 실제 노래를 작·편곡하는 것이 기본문제로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주체는 폭넓게 악기를 다루고 극연기(가극)의 기본적 연출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박 주 희

〈서울지역탈패협의회 의장〉

문화단신

□서노협 '참사랑2'공연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서노협)구로지구위원회는 오는 10월12일 오후3시, 6시 2회에 걸쳐 노동자 노래판굿 '참사랑2'를 한양대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좌절할 수 없는 노동자의 삶과 동지애를 담은 이번 '참사랑2'의 구성은 첫째마당 열사마당 둘째마당은 공장의 담벽을 넘어 넘어, 셋째마당은 민중연대의 깃발아래등으로 되어있다.

이번 공연은 극단 '현장'의 배우 박정열이 작년에 이어 총연출을 담당하며 구로지구 풍물패, 노래패연합과 극패 '해방으로 전진하는 사람들'등이 출연한다.

□ 한국미술사 강좌

제6회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강좌가 오늘부터 92년 1월 27일까지 5개월간 미술평론가 유홍준씨의 강의로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 홀에서 열린다.

85년부터 해마다 개설되어 매 역사시기의 미술사를 새롭게 고찰해온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강의와 2시간 슬라이드 해설로 진행된다.

□극단 '20대' '산불'공연

극단 '20대'(대표 유문종)는 제1회 구름산예술제 참가작품으로 오는 10월5일부터 12월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단 일요일은 5시)광명시민회관대극장에서 '산불'을 공연한다.

차범석씨의 원작을 유문종씨가 연출한 '산불'은 6·25당시 지리산을 무대로 방황하는 민중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문화탐방

'성남노래마을'을 찾아서

'노래마을1집' 일부, 심의에서 삭제되기도
삶의 애환 담긴 노래 창작 시도

노래꾼 백창우씨를 대표로 지난 84년 결성되어 현재 대학가, 노동현장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성남노래마을'을 만나기 위해 서진빌딩5층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온돌로 된 사무실에서는 가족적인 온기가 묻어나고 있었다.

얼마남지 않은 대학초청강연을 준비하기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회원을 뒤로, 한쪽 벽에는 같이 방을 쓰고 있는 '그림마을'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위에서는 몇몇 회원들의 토론이 오가고 있었다.

구전민요, 구전가요의 발굴·보급과 현대민요의 창작을 위해 결성되었던 '노래마을'은 이후 노래에 접맥시키면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현재 '노래마을1·2'집에 이어 노래테입 '우리아이들1·2' '우리들의 사랑이야기'등을 출반하고 있는 노래마을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금노씨는 노래마을 결성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노래마을은 어느정도 일그러지고 구겨진 민중들의 삶을 바로 펴주고 민족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한때 일제에 의해 침탈받았던 민족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마을1집 '그대 어느 어둠앞에 서더라도 혼의 노래 잃지 않기를'을 준비하는 도중 심의에서 11곡이 삭제되었을때 가장 힘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하는 듯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회원들은 무대뒤에서 보이지않게 활동하고 있는 뒷패3명과 직접 공연에 참가하고 대중과 만나는 앞패7명을 포함하여 총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마을의 활동은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민족적인 정서를 담고 민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삶의 애환과 역사의식이 담긴 새로운 노래의 창작과 국악동요, 현대민요들의 창작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으로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음반과 테입을 출반하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층민중과 아픔을 같이 하고 이후 현장에서 공연을 통해 대중과 만남의 장을 확보하는 이외에도 선전선동과 문화선동대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8월 본교 범민족대회에서도 축하공연을 가졌던 노래마을은 앞으로 더 많은 대학과 노동현장, 거리공연등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초 노래마을2집 출반 기념회 모습

대학내 문화에 대해 이금노씨는 "의식적인 학생들과 정처없이 표류하는 학생들로 어느정도 구분된 대학 현실내에서 모두 동참하고 함께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보면 해결될 것입니다."라며 학생들의 진지한 현실참여태도를 기대하기도 했다.

〈문현우 記者〉

참고 영양신

노멘클라투라
소련 당 최고의 기득권층

노멘클라투라란 소련에서 당의 최상층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본래는 특권을 갖는 간부직원(Post)의 명부(특별임명직 리스트)라는 의미였으나 더욱 확대 해석하여 그 특권적 지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上意下達하는 시스템전반을 노멘클라투라라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계층까지가 노멘클라투라에 속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노멘클라투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타의 인정을 받고 널리 알려진 특권이 주어진 엘리트층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특권은 물론 물질적인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특권도 포함되며, 이것이 이와같은 집단의 영속화까지도 뜻하게 되는 것이다.

노멘클라투라에 속한다는 것은, 본인이 특별한 범주에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멘클라투라는 정치적, 행정적, 지적, 그 밖의 갖가지 지위를 좌우한다.

노멘클라투라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중요하며, 어떤 임명을 승인 또는 부인하는 참된 권력의 소재가 되는 것은 당의 노멘클라투라이다. 중앙위원회에서 지구당 위원회까지(그러나 그 이하는 없다)의 각 당 레벨은 각기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지위의 리스트를 가졌다. 지위가 높아지면 그것을 장악하는 노멘클라투라를 갖는 기관도 높은 수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당의 노멘클라투라 이외에도 여러가지 노멘클라투라가 있다.

노멘클라투라의 간부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인구의 평균보다 교육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보다 훨씬 좋은 고등교육을 받으며, 노멘클라투라 내부에서 교육은 격차화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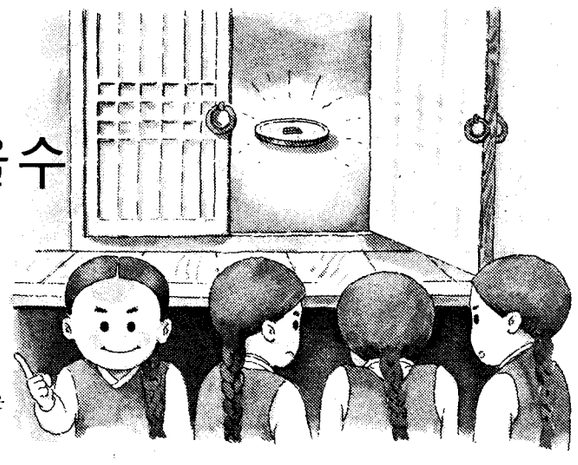
노멘클라투라의 정상급의 생활은 여러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이같은 특권을 가진 층이 그 특권을 탈취당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노멘클라투라 그 자체는 세습이 아니다. 그러나 노멘클라투라라는 집단에의 귀속성이 세습되도록 되어있다. 즉 노멘클라투라 자체는 자가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옥 경 〈대학원 석사1기·정치학〉

세계로, 미래로

동양그룹은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동전 한 닢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한 닢의 동전으로 양초를 사와 그 불빛으로 방안을 가득 채운 슬기로운 학동처럼, 동양그룹은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91하반기 대졸신입사원 및 연구인력 모집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문	모 집 해 당 학 과	모집인원
인 문·사회계열	상경(경영, 경제, 회계, 무역, 통계), 법정(법, 행정, 정치, 외교) 인문(사회, 심리, 교육, 신문방송, 영어, 일어), 미술(산업디자인, 응용미술)	○○○명
자 연·이공계열	수학, 물리,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전산, 통계, 통신, 제어, 정밀측정, 화공, 산공, 공업경영, 식품공학, 무기재료(요업), 자원, 토목, 건축, 산업위생	○○○명

2. 회사별 모집학과

회사 \ 학과	인문·사회				자연·이공															
	상경	법정	인문	미술	수학	물리	화학	기계	전기전자	전산	통계	통신	제어	정밀측정	화공	산공	공업경영	식품공학	무기재료	자원	토목건축	산업위생
동양시멘트	○	○						○							○				○	○	○	
동양제과	○	○	○	○				○	○	○						○		○			○	
동양증권	○	○																				
동양투자금융	○	○								○												
동양베네피트생명	○	○	○																			
동양매직	○	○		○				○	○	○				○		○						○
동양해운		○																				
동양마트	○																					
동양정보통신	○	○	○		○	○			○	○	○	○	○			○						
동양증앙연구소							○		○						○	○	○		○		○	

※동양경제연구소 및 동양투자자문은 동양증권, 오리온프리토레이는 동양제과에서 총괄 채용.
※관련 계열 및 학과 전공자만 지원 가능.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영업직의 경우 전공 불문

3. 응시자격
가. 1964. 1. 1이후 출생자 (연구직은 예외)
나.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학위 소지자 혹은 92년 졸업예정자로서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
다.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중앙연구소의 자연·이공계는 석사이상 지원 가능

4.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다. 신체검사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사소정양식)……1부
나.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 성적증명서 포함)……1부
다. 자격증 사본(전공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1부
라. 중앙연구소지원자중 석사는 논문초록, 박사는 연구 경력서·논문초록……각1부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교부)91. 10. 1(화)~10. 11(금)
(접수)91. 10. 7(월)~10. 11(금)
09:00~18:00(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처: 100-192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동양투금빌딩 15층 동양그룹인력관리위원회

지역	교 부 처	전화번호
서울	동양투자금융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동양투자금융빌딩 1층	(02) 771-5100
부산	동양증권 부산중앙지점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빌딩 8층	(051) 464-8284
대구	동양증권 대구중앙지점 대구시 중구 덕산동 96번지 덕산빌딩 2, 3층	(053) 46-9001
광주	동양증권 광주지점 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 2-1 화니백화점 맞은편	(062) 226-2100
대전	동양증권 대전지점 대전시 중구 은행동 65-1 수정빌딩 2, 3층	(042) 272-1500

7.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된 등기우편에 한함.
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지원서상에 명기하고 증빙서 첨부시에 한함).
다. 현역복무중인자는 1991년 12월말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할것.
〈전화문의: 대표전화 771-5100 (교환 250~254), (직통) 755-2080〉

동양그룹 인력관리위원회

가족회사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투자금융·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오리온프리토레이·동양매직·동양해운·동양마트·동양창업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정보통신·동양경제연구소·서남재단